

엄마의 고백 (KBS <엄마의 탄생>)

양주연

이제 막 군대를 전역한 동생과 엄마의 대화는 이렇게 시작했다. “이게 다 엄마 때문이야.” 대학교 3학년으로 복학을 했지만 경영학이라는 전공에 흥미가 없던 동생은 자신의 초등학교 6학년 때의 시간을 불러왔다. 한창 야구의 재미에 빠져 프로야구선수를 꿈꿨던 나이, 그때 엄마는 동생에게 ‘야구는 취미로 하라’는 조언을 해주었다. 초등학교 때 엄마의 조언은 사실 명령에 가까웠다. 중학생이 된 동생은 야구는 취미로 살 수밖에 없는 학교로 전학을 갔다. “엄마가 미안해. 그때는 엄마도 몰랐어.” 후회하고 있는 엄마의 모습은 너무도 낯설었다. 돌이켜보면 엄마의 교육법은 늘 당당했고 흔들림이 없었다. 그때마다 흔들렸던 것은 엄마에 대한 내 마음이었을까도 모른다. 그런 엄마가 50대를 접어든 지금, 자식들 앞에서 흔들리고 있다.

엄마의 눈물을 처음 마주하게 된 날은 내가 처음 카메라를 샀던 날이기도 했다. 카메라 테스트 겸 엄마를 자리에 앉혀고 이런저런 인터뷰 촬영을 진행하고 있었다. 질문들 중 우연히 외할머니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그때 외할머니는 대장암 수술을 받은 직후였다. “엄마, 엄마에게 엄마란 어떤 존재야?” 엄마는 선뜻 대답을 못했다. “엄마가 외할머니 때문에 서울로 대학을 못 갔지. 그때 생각하면 많이 서운하지.” 결국 엄마는 내 앞에서 눈물을 보이고 말았다. 나는 처음 보는 엄마의 눈물 앞에서 황급히 카메라를 끄고 우는 엄마를 달래주었다. 엄마에 대해 내가 알지 못했던 시간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다. 엄마의 눈물보다는 엄마의 웃음이 더 익숙하고, 엄마의 후회보다는 엄마의 기쁨이 엄마의 전부라고 생각했었다. 그런 내가 우는 엄마를 달래주는 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엄마가 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엄마의 눈물 섞인 고백을 듣게 된 이후, 내가 엄마가 된다는 것이 더욱 더 자신이 없어졌다. 그러다 텔레비전에서 어느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다. 이 글은 몇 년 뒤 엄마가 될지 모르는 나의 ‘엄마의 탄생’에 대한 하나의 질문이기도 하다.

엄마라는 정답지의 탄생

KBS <엄마의 탄생>은 네 엄마의 임신과 함께 시작된다. 엄마들은 모두 새로운 생명을 맞이하는 황홀감으로 가득했다. 그 표정은 내가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세계의 기쁨과도 같을 것이다. 그녀들의 표정을 TV를 통해 보는 것만으로 그동안 간과하고 있던 생명의 신비와 존엄성이 환기되었다. 이러한 기쁨은 곧 저출산 국가라는 대한민국의 현실과 만나게 된다. KBS <엄마의 탄생>은 ‘출산장려’라는 기획으로 만들어진 교양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에는 아기 때문에 웃고 우는 엄마들의 표정들이 담겨

있다. 각자의 상황이 모두 다른 네 명의 엄마들은 출산이라고 하는 거룩함 속에서 하나가 되었다. 그녀들의 표정은 ‘기쁨’이라고 하는 거대한 하나의 표정과도 같았다.

하지만 출산을 앞둔 엄마들의 표정이 과연 기쁘기만 할까? 그녀들의 표정을 보고 난 뒤의 질문은 이렇게 시작된다. 엄마가 된다는 것은 뱃속에 생명을 잉태해야만 하는 10개월의 시간, 그 이상의 시간들을 필요로 한다. 그렇다면 엄마가 된다는 미지의 시간과 이전의 시간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까. 내가 출산을 주저하게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이는 경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준비를 필요로 한다. 보건복지부의 조사에 따르면 산모들의 약 85%가 출산 전·후 우울 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엄마가 된다는 것은 기쁨 뒤의 슬픔까지도 알아간다는 것이다. 엄마라는 말은 하나의 완성형이 아니라 여전히 진행형인 갈등의 언어일지 모른다. 엄마가 탄생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갈등과 고민을 이겨내야만 한다.

임호 씨의 아내, 윤정희 씨는 셋째 임신에 대한 소식을 주변사람들에게 전할 때 “남들에게 생각 없어 보일까봐 임신소식을 전하기 민망하다.”는 인터뷰를 했다. 13년 동안이나 임신을 시도했던 강원래 씨의 아내, 김송 씨는 임신자체를 선물과도 같다고 말했다. 이제 막 첫째 아기를 임신한 여현수 씨의 아내 정혜미 씨는 책으로 육아를 공부하고 있다. 각기 다른 조건의 엄마들은 모두 출산과 육아에 철저히 집중되어 있다. 프로그램에서 보여 지는 이들의 표정은 밝다. 간혹 임신 스트레스에 대해 털어 놓기도 하지만 이들의 균열은 자상한 남편, 혹은 또 다른 아이들에 대한 사랑으로 금세 사라진다. 마치 이들의 삶은 자신들의 출산을 아주 오래 전부터 예견했던 사람들로 보인다. 이들의 표정에서 새로운 상태에 대한 긴장이나 갈등은 조금도 노출되지 않는다. <엄마의 탄생>은 오로지 행복해하는 엄마들이라는 단 하나의 상만을 보여주려 한다.

“엄마, 나를 낳아서 어땠어요?” 내가 아직까지 엄마에게 선뜻 하지 못한 질문이다. 옷장을 정리하다 우연히 발견한 앨범 속 엄마의 대학교시절 사진은 너무도 낯설었다. 내가 이미 그 사진 속 그녀의 나이를 넘어섰다는 사실은 애써 모른척하고 싶은 현실이다. 엄마라는 사람을 인식하게 된 이후로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것은 엄마는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내 엄마이었을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이는 자연스레 엄마의 처녀 시절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졌다. 엄마가, 엄마가 아니었던 시간들은 간혹 흥미롭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아찔하기 때문이다. 그러다 우연히 발견한 엄마의 처녀시절 사진은 내가 전혀 상상도 못했던 또 다른 엄마의 모습을 불러왔다. 엄마도 엄마가 아닌 시절이 있었구나. 그렇다면 엄마는 어떻게 엄마가 되어 간 걸까. 이런 물음들은 곧 엄마는 단지 출산과 육아만으로 형성되는 것만은 아닐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엄마에게도 낯설었을 ‘엄마되기’의 과정들. 엄마라는 상태에 대한 정답은 그 어디에도 없다. 중요한 것은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엄마되기’에 대한 질문들을 만들어 가는 상태에 있다. 그 과정은 기쁨과 슬픔의 긴장상태에 놓여있게 된다. 그리고 그 간극의 어딘가, 엄마가 있다.

하지만 KBS <엄마의 탄생>에서의 엄마들은 어떤 정답을 제시한다. 그녀들은, 표정

은 있지만 사실은 입이 없는 상태로 호명 받는다. 셋째를 임신 했을 때 주변사람들이 걱정하기 시작했다는 윤정희 씨의 대답은 곧바로 남편 임호 씨의 입을 통하여 말하여진다. 자신의 꿈이 아이 셋을 갖는 것이었다는 임호 씨의 기뻐하는 모습은 <엄마의 탄생> 녹화 스튜디오를 통하여 다시 한 번 소환된다. MC 박지윤 씨와 세 명의 아빠들이 진행하는 스튜디오 녹화는 각각의 가정들을 잇는 나무줄기이다. 즉 이러한 스튜디오 녹화를 통하여 각각의 가정에서 어떤 차이들이 발생하더라도 프로그램의 전체 톤을 정리하고 다듬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출산의 기쁨을 언제나 관찰자의 입장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 아빠들은 스튜디오에서 출산의 기쁨 자체를 말하는 화자가 된다. 정작 출산의 당사자인 엄마들은 아빠라는 화자들의 관찰대상이 되는 것이다. 내가 궁금한 지점은 왜 윤정희 씨에게 출산이라는 신성한 행위가 생각 없어 보이는 행위가 되었던 지에 대한 갈등의 이유였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에서 엄마들은 출산의 갈등지점이나 우울증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 이는 자칫 그녀들이 이미 ‘엄마되기’의 정답지를 손에 쥐고서 엄마라면 당연히 출산을 기뻐하고 준비해야한다는 말로 비춰질 수도 있다. 이미 고민이 끝난 상태에서의 프로그램 전개는 여전히 출산에 고민을 하는 대다수의 많은 부부들에게 또 다른 상실감을 안겨다준다. 출산을 하면 안 되는 이유는, 출산을 해야만 하는 이유만큼이나 절실하고 다양하다. 출산이라는 선택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다. 정답지에 포함될 수 없는 질문들은 프로그램에서 만들어 놓은 엄마라는 이미지 안에서 철저히 배제된다.

가정적인 아빠의 탄생

KBS <엄마의 탄생>에서 끊임없이 말을 하는 사람은 임신한 엄마들의 곁을 지키는 아빠들이다. 출연 부부의 구성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들은 모두 유명한 남편과 가정주부인 아내라는 부부형태를 띄고 있다. 이들은 철저히 남편은 바깥일을, 아내는 집안일을 해야 하는 조건을 형성한다. 여기에 남편들은 바깥 스튜디오에 출현하여 MC 박지윤과 함께 자신들의 가정에 대하여 이야기를 한다. 이때 MC 박지윤은 스튜디오에 나오지 못한 네 명의 엄마들을 대변하는 역할을 맡는다. 그녀는 각각의 가정들의 VCR을 보며 감탄하기도 하고 때론 아빠들의 잘못된 행동을 지적해주기도 한다. 자신의 아내 옆에서는 권위적이었던 강원래는 스튜디오로 전환 되었을 때 수줍고 긴장한 모습을 보여준다. 이는 순간순간 보이는 박지윤의 재치와 순발력을 뛰어넘어 ‘아빠가 되려면 가정적인 모습으로 아내에게 배려해야 한다’는 또 다른 프로그램의 기획의도를 노출시킨다. 즉 KBS <엄마의 탄생>은 남편이 바깥일을, 아내는 집안 일을 하는 가정의 조건 안에서 이제는 남편들도 가정적인 모습을 띄어야만 한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

이는 엄마의 탄생이란 곧 가정적인 아빠의 탄생을 의미한다는 또 다른 압박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가정 속에서 배제되는 것은 미혼모 가정을 비롯한 편부모 가정이나 맞벌이 부부의 사례들이다. 오늘날 남편은 바깥일, 아내는 집안일이라고 하는

공식에 들어맞는 부부의 비율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는 육아에 전념하고 싶어도 전념할 수 없는 엄마들과 가정적인 가장이 되고 싶어도 될 수 없는 아빠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말과도 같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대하여 KBS는 여전히 보수적인 형태에서의 해결책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다양한 부부들의 조건을 반영하지 못한 채 가정적인 아빠라는 대안만으로 엄마의 탄생을 이야기할 경우, 소외되는 것은 이 프로그램을 보고 있을지도 모르는 편부모가정이나 맞벌이 가정의 아이들이 될 것이다. 다양한 엄마의 탄생에 대한 다양한 대안들이 필요하다.

또한 프로그램 전반을 끌여가는 스튜디오 인터뷰에서 아빠들의 말만을 듣는 것은 자칫 엄마의 탄생을 아빠의 존재 안으로 수렴해버리는 행위일 수 있다. 이는 물론 가정적인 아빠의 탄생이라고 하는 교훈적인 메시지를 줄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여전히 집 안의 중심은 아파이고 엄마는 이들에 따라 탄생할 수도, 아닐 수도 있다는 가부장적인 시선의 오해를 불러올 수도 있다. 이러한 구성은 가정적인 아빠의 존재만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엄마들의 다양한 고민과 우울들을 발화되지 못하게 한다. 하지만 이런 지점들이 이들의 입을 통하여 말해질 수 있을 때 출산의 불안을 느끼는 다양한 조건의 사람들 역시 마음이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저출산국의 이유가 단지 자상한 남편이 없었기 때문만은 아닌 것처럼 말이다. 중요한 것은 출산의 불안과 행복에 대하여 아빠들의 입뿐만 아니라 당사자인 엄마들의 입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말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랬을 때 화자가 아닌 관찰자로서 아빠들의 또 다른 고민이나 우울 등의 감정에 대해서도 솔직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다.

엄마의 '유동적인 상태' 탄생에 대하여

엄마를 원망하는 동생과, 엄마의 엄마를 원망하는 엄마. 둘 사이의 공통점은 모두 엄마라는 말이다. 엄마라는 말은 출산과 육아를 뛰어넘어 그 이후의 시간들 속에서도 여전히 진행 중인 말이다. 이랬을 때 엄마라고 하는 명확한 정답지가 존재하는 세계에서는 출산에 대한 공포가 계속 될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그 정답지를 제시하는 곳이 공영방송인 KBS라면 그 조건에 부합하지 못하는 가정의 소외감이나 상실감은 엄청날 것이다. 저출산국의 탈출을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명확한 정답지 제시가 아니라 열려있는 질문지의 제시이다. 지금의 결혼, 출산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은 변해가는 시대만큼이나 다양하다. 다양한 엄마, 아빠들의 탄생에 대하여 보다 열린 눈으로 바라본다면 극적이고 감동적인 '엄마의 탄생'이 가능해질 것이다.

더 많은 엄마들의 고백을 허하라. 엄마의 탄생은 이러한 고백들로 만들어지는 진행형의 이야기가 되어야만 한다. 내가 연달아 들었던 엄마의 고백들로 인해 역설적이게도 나는 엄마를 더욱 엄마로 느끼게 되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엄마의 고백들을 그저 어느 개인의 스쳐가는 슬픔으로 밖에는 말하지 못했던가. 스쳐 보내버렸던 85%의 출산 전·후 우울증, 스쳐 보내버렸던 윤정희 씨의 인터뷰, 스쳐 보내버렸던 엄마의 처녀시절 사진, 그리고 눈물의 고백에 대하여. 그렇게 흘러가는 풍경들이 모이고 모여 엄마가 탄생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그녀들의 말에 주목해야 한다.

“아직도 내가 좋은 엄마인지는 모르겠다.” 이번 명절연휴의 끝자락, 엄마가 흘러 보낸 한마디 고백이 왠지 아팠다. 출산 이후에도 지속되는 엄마라는 것의 시간은 왜 이리 가혹한지. 그 시간을 견뎠을 다양한 조건과 연령대의 엄마들이 궁금해지기도 했다. 일단 엄마라는 말이 갖고 있는 다양성과 보편성의 지점에서, KBS <엄마의 탄생>의 시작을 응원한다. 나아가 엄마라는 보편성이 다양성을 잡아먹는 먹이사슬을 형성하지 않도록, 그 간극을 잘 찾아갔으면 좋겠다. 다정한 가정의 모습이 순간적인 위안제가 될 수는 있지만 정답이 될 수는 없다. 여전히 진행 중인 다양한 엄마들의 탄생에 대하여, 공영방송에서 제시하게 될 열린 질문지를 기대해본다. 모두를 만족시킬만한 엄마의 탄생은 이상적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바로 현실에서 다양하게 진행 중인 엄마의 탄생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이다. 더 많은 엄마들의 고백을 허하라. 그리고 더 많은 엄마들의 탄생을 응원하라. 생각만으로도 아름다운 일이다.